

유학의 개념으로 본 디자인교육 체계 개발의 가능성

A Possibility of Design Education on Confucianism's Point of View

박영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PARK, Yeong-Mog

Dept. of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ey words: Design Education, Confucianism

1. 서론

유학은 삼국시대 이후 특히 조선시대에는 500년간 국가의 통치이념이자 교육의 중요 내용이었다. 조선후기의 혼란과 한일합방으로 과거 100여 년간 전통 사상이 단절되고 왜곡되면서 유학의 가치도 왜곡되거나 평가절하되고 있으나, 유교가 현대화 직전까지 우리 문화에 2,000년 이상 영향을 끼쳐온 사상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할 수 없다.

한편 현대의 디자인은 서구에서 도입되어 50여년 이상 경제 발전과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왔다. 그러나 현재의 디자인은 민족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전된 형태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국수주의나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전통의 옹호나 고집을 위하여 유학을 현대의 디자인과 결합하거나 현대의 디자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의 자연스러운 발전 형태를 찾기 위하여 유학과 디자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디자인의 다양한 범위 중 교육의 범위로 제한하여 유학의 관점으로 디자인 교육체계의 개발 가능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가능성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유학은 우선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지, 그리고 그에 도달하는 방법, 도달하기 위한 길, 순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에 응용 가능한 안정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식의 습득 보다는 깨달음에 목표를 두고 있어 디자인과 유사성이 많다. 그리고 사서(四書)에서 보여지는 공자 및 맹자와 제자들의 대화에서 올바른 교육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많아 디자인 교육에 적용 가능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유학에도 수많은 사상이 및 경전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으로는 4서, 즉 대학(大學),중용(中庸),논어(論語),맹자(孟子)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4서에서 보여지는 유학의 교육관을 디자인 교육에 적용하여 한국인에 적합한 디자인 교육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그리고 4서 중 특히 논어와 대학을 중심으로 유교의 사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의 체계로 디자인 교육의 체계를 제안해보는 것을 연구의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4서라 해도 시대나 역자에 의하여 너무나도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내려져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기동¹⁾의 해석에 의한 것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2. 본론

1)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부 교수. 주요저서로는 대학중용강설, 논어강설, 맹자강설 등이 있다.

2-1 유학의 사상체계

논어의 첫 구절인 '학이시습지(學而時習知)니 불역열호(不亦說乎)야'는 배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배움은 학문을 닦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가치를 깨닫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기동(2004)은 "공자가 지향한 이상적인 상태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상태, 즉 인간은 살고자하는 의지(性=心+生)를 가진 존재이며 이 살고자하는 의지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나와 다른 생명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살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를 인식하며, 이 살고자하는 의지는 자연의 이치임을 자각한 상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낳고 기르는 원동력을 천명(天命)이라고 이 천명에 의하여 각 개체가 가진 살려는 의지 중 특히 인간이 가진 것을 성(性)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육신이 자신이 아니라 성에 의한 삶을 자각하고 더 나아가 천명에 의한 것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학문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

그리고 이 '성을 회복하는 길을 도(道)라하며, 이 길을 욕심 등의 영향에 의하여 굴절되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능력을 덕(德)이라 하였으며, 이 방법으로는 성이 발출되는 과정에서 의(意)가 굴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성의,誠意)와 다른 하나는 굴절되는 외적 요인 즉, 계산하는 등의 마음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지경,持敬)이다.'라고 하고 있다.³⁾

이와 같은 체계는 학문의 최종적인 목적 및 목표상태, 이를 위한 교육의 목표, 교육방법 및 단계, 최종학문의 목표 상태에 다다르기 위한 피교육자의 필요 능력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디자인 교육의 체계

위의 체계로 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대입해보기 위하여 현재 국내 6개 대학(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KAIST, 숙명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의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교육목표 및 학과소개 내용을 거칠게 분석, 종합하여 위와 같은 체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문의 목적** : 교육과정 및 목표의 내용이 일반인이나 입시생 위주로 되어 있어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정의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 **교육의 목적** : 대부분의 대학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함.
- **교육단계** : 기초-심화-응용 및 전문의 단계가 대부분임.
- **교육내용** : 조형, 창의 등 디자이너의 능력함양을 위한 교육 및 제품, 자동차, 미디어 등 대상을 디자인 할 수 있는

2) 이기동,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2. 41p.

3) 이기동, 대학중용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1. 59p

능력

• **피교육의 목표상태** : 지도자의 자질, 종합능력, 전문가로서의 능력, 시대를 이해하는 능력 등

2-3 유학의 디자인 교육의 대입

• **학문의 목적** : 교육의 목표 이전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제시되어야 한다. 디자인의 학문적 목적에 유교의 개념을 대입하면, 도구를 만드는 행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이 본성을 깨달아 모든 인간에게 살려고 하는 의지, 즉 성이 있음을 자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대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 빈곤감이나 위화감을 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동차는 도구가 가진 본질의 기능, 즉 인간이 먼 거리를 힘들게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속성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자동차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동차의 다양화, 즉 고급감의 추구, 사회적 지위 표출에 이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질적인 기능에서 세분화되는 빨리 가느냐, 동시에 많은 사람이 가느냐에 의한 세분화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면 디자인의 학문적 목표는 '인간이 인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디자인의 구현이며 이 경우의 디자인은 인간이 그 도구에 기대하는 역할의 본질적인 역할이 충실히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교육목표** : 학문의 목표를 위와 같이 한다면 교육의 목표는 이와 같은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견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를 '시대를 이끌어가는' 혹은 '~능력이 있는'에 두는 경우에는 교육의 목표라기보다는 교육된 인재의 역할 혹은 피교육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유학의 개념에서 디자인 교육의 목표를 해석한다면, 위에 언급한 디자인의 목표를 깨달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그 가치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것에 교육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교육의 단계** : 유교에서의 교육의 단계는 매우 다양하다. 그 이유는 피교육자의 상태, 능력, 성격에 따라 교육의 단계를 달리한 내용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大學)에서 제시되는 교육의 단계를 가지고 디자인 교육 단계에 대입하여 보기로 한다. 대학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단계로 학문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治國平天下)는 학문의 단계라기보다는 수신(修身)에 의한 효과로 보는 것이 옳다. 즉 수신(修身)된 인간이라면 제가(齊家)되며, 치국(治國)되며, 평천하(平天下)된다는 뜻으로 봄이 옳바르다. 따라서 구체적인 단계는 격물>치지>성의>수신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요약하면 사물이나 현상을 대하여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익힘으로써(격물) 거기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진리를 깨달아 지식을 얻고(치지) 그 변질되는 마음 없이 학문을 하여

(성의) 자기 자신을 얻은 진리와 동화 되도록 하는 것(수신)이 학문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를 디자인에 대응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다양한 사물이나 디자인개념을 접하게 하되, 각 사물이나 개념의 차이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있는 내용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을 첫 단계로 격물, 치지에 대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성의의 단계로 알게 된 지(知)가 왜곡됨이 없이 지켜질 수 있는 자세를 교육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학 내에서의 교육만으로는 구현하기 힘들고 사회에서 혹은 각종 제도에서 계속하여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완전한 디자인으로서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쓰는 것(修身)이 가치 있고 율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디자인에게서 나온 결과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줌으로써 피교육자가 계속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즉 이를 종합하면 올바른 디자인 교육의 단계는 대학이라는 전문교육과정 중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졸업하여 하나의 완전한 디자이너가 될 때까지 사회에서의 선배디자이너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단계를 예를 먼저 실천하고 나중에 성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피교육자가 처음부터 어려운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므로 우선 형식을 익히고 그 형식이 가진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디자인에 대입하면 저학년 및 초보자는 많은 경험을 체험하게 한 뒤, 나중에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이해시키는 단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 저학년에 컨셉디자인 같은 과정은 적합하지 않고, 재료의 이해, 가공방법 및 제작방법의 이해, 사용에 대한 이해 등 실질적인 실천 능력의 함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교육의 방법** : 유학에서는 성 혹은 천명을 깨닫는 길(道)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지경(持敬)과 성의(誠意)를 꼽고 있다.⁴⁾ 지경이란 길을 벗어나는 원인을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며, 성의란 길을 올바르게 가려는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디자인 교육에 대입하면 디자인을 이용한 부나 명예의 획득이 올바르지 못함을 끊임없이 교육하는 방법(지경)과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인식시키는 것(성의)로 생각할 수 있다.

3. 결론

풍우란(馮友蘭)은 그의 저서⁵⁾에서 공자를 최초의 전문교육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유학은 교육체계에 적용가능한 안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하여 유학의 개념이 현대 우리의 디자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나, 디자인 특히 디자인교육에 대응 가능하며 새로운 교육관을 제사하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4) 이기동, 대학중용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1

5) 풍우란, 박상규 역, 중국철학사, 까치글방, 1961, 85p